POLITICS

김영록 지사, 프놈펜서 '아세안' 외교 확대 발판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한상총연합회서 한인 리더와 소통
프놈펜 시장 만나…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아시아 각국 재외한인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프놈펜시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 외교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프놈펜 현지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리더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낯선 땅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한인 리더들 덕분에 케이(K)-푸드, 케이-컬처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전남에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솔라시도'가 있고,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도 해 관련 기업의 스케일업이 기대된다"며 "또 고흥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초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달 착륙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맛의 고장이자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지역이므로, 많은 분이 전남을 직접 방문해 보고, 맛보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프놈펜시청에서 쿠옹 스렝(Khuong Sreng) 프놈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프놈펜시는 캄보디아의 심장이자 아세안의 떠오르는 도시로, 전남도와 협력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지역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옹 스렝 시장은 "전남도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뛰어난 농수산 기술을 가진 지역으로, 프놈펜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두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다.

프놈펜시는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최대 경제 중심지로, 활발한 개발과 투자 유치가 이뤄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의 주요 도시다. 전남도는 이번 면담을 통해 프놈펜을 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삼고, 농수산물 수출 및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현지 시간) 프놈펜 다라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한상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양파 수급안정 나서
공공기관 협력 소비촉진 확대

전남도는 2025년산 양파 도매가격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일환으로 12일 도청 직원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생육 시기 기상 호조로 품질 좋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라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양파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5kg, 600망, 3t 공동구매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양파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격 안정 대책을 건의해 △정부 수매 비축 3만t △저품위 출하 억제 4000t △중생종 출하 연기 5000t의 수급 대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양파 도매가격은 11일 현재 kg당 602원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경기침체로 둔화한 소비 진작을 위해 중앙부처,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중앙회 등 단체에 국산 양파 구매 확대, 각 기관 구내식당에 햇양파 및 양파 절임김치를 식단에 제공하기, 양파 한 망 더 먹기 등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땀 흘려 재배한 양파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과 병행해 판로 확대 등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직원 양파 사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농협 전남본부,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소비촉진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진 공모
전남도민 대상 27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진에 담은 나의 전남살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남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상과 감정, 삶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진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남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정착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순간들이다.

일터와 마을, 이웃과의 교류, 가족, 변화된 일상 등 정착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면 자유롭게 응모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입상작 발표는 7월께 전남도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입상 40명(각 10만원) 총 43명에게 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7월 12일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전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061-286-677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열린다

역대 민주정부 계승 단체들, 한반도평화를 위한 상설협 발족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6·15 남북정상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는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그리고 한반도평화의 주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를 향한 길에 항상 앞장서는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1세션과 새로운 평화·통일전략을 논의하는 2세션으로 펼쳐진다.

1세션은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고, 라종일 전 주영대사,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토론한다.

정세현 전 장관은 "6·15 남북정상선언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의 궤도가 부설됐다"고 평가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활용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또 "통미봉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가도 좋다'는 열린 자세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평화협력 관계를 복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2세션은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발표하고,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한다.

김연철 이사장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3대 과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 △9·19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북핵 문제를 동결-감축-폐기의 3단계로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동력의 강화를 막는 동결부터 실현하고, 다음 단계로 감축을 추진하는 핵 군비통제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한반도평화정책을 위해 역대 민주정부와 주역들이 의지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은 역대 민주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4개 단체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학술회의에 앞서 협의회 발족식을 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서울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실천 다짐

금호건설·제일건설 방문…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도

전남도는 12일 서울시 호남향우회와 함께 금호건설·제일건설 주식회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도는 이날 서울 호남향우들과 함께 금호건설·제일건설 주식회사 5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내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향사랑 기부제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전복 이벤트,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먹깨비 이벤트 등을 홍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기부 실천과 서포터즈 가입에 동참했다.

해남 출신인 금호건설 한 임직원은 "임직원들과 함께 전남 고향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애향심이 모여 전남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고향사랑 홍보에 함께한 박종명 서울호남향우회장은 "전남을 떠나 서울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을 향해 응원하고 있다"며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협력하는 등 고향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기부금은 도민을 위한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겠다"며 "전남 방문을 위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혜택도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마을 코끼리마늘꽃 축제

화순 세량제

담양 관방제림·보성 윤제림·강진 작천 부흥마을·화순 세량제
6월 사진찍기 좋은 전남 여행지 4곳 추천

전남도는 최근 엠지(MZ) 세대의 '엄마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 바꿔드리기' 트렌드를 반영, 사진 남기기 좋은 명소로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 부흥마을, 화순 세량제를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를 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한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울창하게 자란 팽나무, 벚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싱그러운 햇살 아래서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보성 윤제림은 1964년부터 가꾼 민간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하는데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사한 수국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숲속야영장(27개소),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독 숙박시설(6동)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세량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벚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전남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시엔엔(CNN) '한국에서 꼭 가봐야할 5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상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가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꾼 샤스타데이지,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농촌 마을의 정서를 느끼고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엠지자녀가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